

다양성의 시대속, 비평의 의미는?

미술비평가 고동연·안진국·신현진이 문체 '비평의 조건' 출간
박영태·심상용·류병학·이선영·심상용 등 16인의 인터뷰 기록

미술비평이 사라진 시대, 비평이 권력이기를 포기한 자리에서'를 부제로 한 '비평의 조건'이 출간됐다.

미술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저자 고동연, 안진국, 신현진이 미술비평가와 미술비평 그룹들을 만나 진행한 16편의 인터뷰가 실렸다.

박영태, 류병학, 김정현, 서동진, 백지훈, 홍경한, 이선영, 멜로우 켈 클럽, 심상용, 현시원, 흥태립, 정민영, 양효실, 김정현, 이영준, 집단오찬을 인터뷰하고 기록한 책이다.

예술의 기준이 다원화되면서 더 이상 비평가들이 담론으로 주도하는 일은 힘들어졌다. 비평이 위기에 빠졌다는 푸념이나 경고가 국내 미술계에도 만연해 있다.

비평가들은 '비평이 미술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현대 미술비평은 현대미술만큼 어려워졌다"고 했다.

"비평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비평이 미술에 빠졌다' (2014년 10월 국제미술평론가협회 개최한 학술대회의 제목), '비평이란 겨우 병신체로 채워진 주례사'(김종길은 2013년 5월 '아트인컬처'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병신체를 극복하자고 했다)라는 등 각종 비난이 난무한다"

심상용 비평가는 "비평이 죽었다'는 진술

은 저에게 특정 작가나 현상에 의미를 집중시키기 위해 글을 생산하는 비평의 주도권이 시장으로 양도되어 온 현상을 떠올리게 해요. 오늘날 비평은 스스로를 왜곡하면서 신화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295p)

이 책은 ▲비평의 주제 : 누가 비평하는가? ▲비평의 인프라 : 어떻게 유통되는가? ▲비평의 시대적 조건 : 무엇이 변수인가? ▲비평의 대상 : 무엇을 다루는가?를 통해 미술계에서 비평의 역할과 현재 미술계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비평의 조건' 저자들은 "비평이 어떠한가 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비평가의 무용담을 다루지는 않는다"면서 "평의 위기를 논하기 전에 비평가를 둘러싼, 그리고 비평가들에게 지면을 제공하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역사적, 개인적 배경을 다양한 연령대, 비평계 입문 경로, 글의 형식과 시대적 예술사조에 따라 비평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였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책"이라고 소개했다.

재테크로 대체된 미술시장, 다양성의 시대속에서 비평의 의미는 무엇일까?

"비평 활동 역시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에 대한 생산적인 상호작용의 누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글을 발표할 곳



도 마땅히 없는 신진은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성공도 실패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며 '크리티컬-칼'을 만들었죠"(홍태립, 비평가와 정책, 349쪽)
"미술에 관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술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정민영, 비평의 대중화 : 독자 없는 비평은 가능한가? 383쪽) 갈무리 펴냄, 528쪽, 2만4000원. /뉴시스



지평선합창단이 최근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제5회 대한민국 독도합창제에 참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국제교류 사절단 역할 '톡톡'

김제시 농부합창단, 독도합창제에서 대상 수상

김제시 농부들의 (사)지평선합창단(단장 김경환)이 최근 독도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나라 '독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독도합창제에 참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합창단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우리는 오늘을의 경연을 위해 지휘자(고 심춘택)의 지도로 '홀로아리랑'을 불렀고, 오늘의 대상 '홀로아리랑'은 한 달 전 고인 된 지휘자에게 바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휘자 고 심춘택은 대한민국 관악상, 대한민국 관악협회지도자상, 대한민국 음악인상, 대통령 훈조근정훈장, 대한민국 육경문화상 등을 수상했고, 고향 김제에서 후학 양성하고 음악발전을 위해 농부들의 합창단을 조직했다.

김제시 농부들의 (사)지평선합창단은 지난해 이탈리아 초청 5개 도시 순회공연

에 이어 오는 12월에도 로마, 피렌체, 밀라노, 비엔나, 노비 리구레 시(市)에서의 초청 공연 등 열흘간의 이탈리아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평선합창단은 교향청음악학교, 트레비분수성당, 밀라노대성당 등 유서 깊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노비 리구레 시의 음악축제와 음식축제에 참가하여 예술문화공연과 더불어 김제시 농산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김제시를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탈리아 초청공연에서는 412년 역사의 유서 깊은 농업축제 도시 노비 리구레 시와 농경문화의 상징 지평선축제를 이끌어온 김제시의 MOU 체결을 위해 국제교류 민간외교 사절단으로서 (사)지평선합창단의 역할이 매우 주목된다.

/김제=곽태기자

인생은 덧없지만 아름답다, 페터 한트케 '시 없는 삶'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이다. 바쁜 일상은 앞만 보고 달려가게 만들고, 마음의 여유마저 앗아간다. 그럼에도 작가는 잠시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삶의 미세한 틈을 관찰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페터 한트케(77)의 '시 없는 삶'에는 느림의 미학이 느껴진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 실험으로 슬한 화제를 뿌렸던 한트케는 자유로운 시상을 마음껏 펼쳤다. 편집자 올라 베르케비츠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시집은 1960년 후반부터 1986년까지 쓴 시들을 한트케가 다시 배치한 모음집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잠들 때 내가 깨어난다/ 내가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이 나를 본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밑의 바닥이 나를 움직인다/ 내가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 속의 내가 나를 본다/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를 발음한다/ 창문으로 가면 내가 열린다" ('전도된 세계' 중)

"뒤라 설명할 길 없는 어느 차가운 날/ 환해 지지도 어두워지지도 않고/ 눈이 떠지지도 감기지도 않고/ 익숙한 풍경이/ 예전의 친숙한 세계를 불러내지 않으며/ 그렇다고 새로운 세

계의 광경을 본다는 느낌도 없는.(세계에 대한, 돌이면서 하나인 시적인 감정)/ '민약'이라든가 '그러나'가 없고/ '그때는'이라든가 '그 다음엔'도 없는./ 여명은 지났지만 저녁은 아직 상상할 수 없고/ 묵묵히 서 있는 나무에서 아주 가끔씩만/ 마치 가벼워진 듯 가지가 뿜기는, 이런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 날/ 거리에서 한 발 두 발 걷는 사이에/ 갑자기 의미가 사라져버린다 ('무의미와 행복' 중)

1960년대 기성 문단을 비판하며 등장한 20대의 작업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를린 천사의 시' 시나리오 작업을 한 40대 초반에 이르는 20여년간의 여정을 만나볼 수 있다.

한트케는 이혼으로 딸 아미나를 홀로 키우게 되며 어머니의 죽음까지 겪는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재발견하길 바란다.

1972년 쓴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와 '소망 없는 불행'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 시집의 후반부인 '산책의 끝'과 '지속의 시', '시 없는 삶'은 이와 같은 맥락에 맞닿아 있다.

세상은 불공평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다.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 결국 죽



는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힘들어질 뿐이다.
나쁜 일도 지나가기 마련이고 좋은 일도 붙잡을 수 없다. 한트케는 삶이 덧없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강조한다. 조원규 옮김, ITTA, 320쪽, 1만5000원 /뉴시스

지역민과 나누는 해외 우리 문화재 이야기 '완주전주 공감'

31일 오후 7시 삼례문화예술촌서 열려

지역민과의 문화재 토크콘서트 '완주전주 공감'이 31일 오후 7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 있는 문화카페 프레에서 열린다.

'완전 공감'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소속 학예연구사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우리 문화재를 소재로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행사다. 완주·전주 지역민이라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첫 회인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로 간 우리

문화재'를 주제로 '1883년, 독일로 간 타임캡슐'가 준비됐다.

오춘영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이 직접 시민들과 이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오 소장은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문화재를 조사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라시박물관은 19세기 후반 이래로 수집한 한국문화재 2100여건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물로 남아있지 않은 옛날 성냥 '인광노' 등 생활유물도 소장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